

결혼과 여성의 지위-여자의 재산과 재산권

주부의 '마술지팡이' 어디로 가야 하나?

주부의 금융가치를 되찾는 실명제를 위해

주부들의 가슴에는 피해의식의 아킬레스 건이 심어져 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과 이 사회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실명제 발표로 아내명의 예금계좌에 증여세를 부과할 거라는 둥, 아니라는 둥의 설왕설래가 있게 되자 여자들은 피해의식의 신경줄을 바짝 세우며 원성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여자들은 계를 조직해서 목돈을 만들고 그 돈을 기반으로 사채를 놓고, 또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해 왔지만, 이 수입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는 돈으로 남아야 했던 것이다.

한국의 많은 억척 부인들이 아들 명의, 남편 명의로 돈을 모아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재산축적 방식에도 변화가 와야 할 것 같다.

또 금융실명제는 그야말로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해서 세금을 정확히 걷어들이자는 제도지만 여자들에게는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재산권과 실제 현행 세제가 인정해주는 부분과의 차이, 그리고 여자들이 제도 금융권을 외면한 채 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상호간의 사전이해가 있어야 하는 부분 등이다.

남편 몰래 모아놓은 '아람치' 들켜버렸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아람치'를 가지고 있던 여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모양이다. 여자들이 남편이나 자식 몰래 가명계좌에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자 "다 들켰다"고 하소연. 상류층 사회에서는 아내의 가명 계좌를 발견한 남편들이 한편 놀래면서도 즐거워하는 표정을 짓는 이색 풍속도가 벌어졌다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의 거액 몰래 돈이 든 가명 계좌를 발견하자 차를 바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주부들의 원초적 분노 '우리는 놀지 않았다'

금융실명제 이후 여자들의 계모임에선 여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주제가 빈번하게 화제로 등장했다. "다 여자들이

자기몫 아끼지 않고 일하면서 계 붓고 이자 놓고 해서 큰 돈 만들었고, 땅 사고 집 사는 것도 다 여자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번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라는 반론도 있고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 이름으로 남은 건 7백만원짜리 콘도미니엄과 전화 한 대뿐"이라는 허탈한 심경의 토로도 들린다. 또 "내가 번돈이 계 부어 만든 돈이라고 말하면 세금을 크게 맞게 되니 조심하라"는 충고의 소

명했다. 보통사람은 불가능한 억척과 오기로 벌어들인 여자의 재산이다. 그러나 이집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이다. 첫 재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기는 재산도 세금 계산상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억척부인이 법제상 가지는 경제적인 지위는 남편에게 의존된 피부양자일 뿐이다. 실제적으로는 실컷 가족들을 부양하고서도 법적

금을 제도금융권을 통해서 잘 활용했다고 해도 그 돈의 상한선은 분명히 정해진다. 실제로 1백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집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잘 적용되는 사회였다면 우리들이 사는 삶의 수준이란 어느 정도 평균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상향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0억짜리 빌라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투를 받아서 목돈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고급스러운 생활 수준도 만들어내는 마술을 부려온 것이 한국의 전업주부들이다. 외국의 전업주부들은 이런 마술지팡이를 휘두르지 않는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큼만 소비할 수 있을 뿐이다. 아내의 경제행위가 소비에서 끝나는 줄을 잘 아는 외국남자들은 월급봉투를 맡기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한다.

한국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월급봉투를 통째로 맡겨 놓고 있으면 3,40년 후에는 그간의 사정이 어쨌든간에 아이들 교육도 성공적으로 끝나 있고 집 한 채 정도는 더해져 있는 행운을 누리는 편이다.

주부들의 경제학과 제도 금융이 만나는 길은?

그런데도 상속세법에서는 주부들의 공로를 1년간 1백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상속세법이 정하는 기초공제액이란 것은 1천 5백만원에다가 1년에 1백만원씩 계산해서 결혼 했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정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그 나머지 재산에 자금출처를 뚜렷히 대지 못하면 80%까지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30년간 결혼생활을 한 주부가 있다면 그의 기초공제액은 1천5백만원 + (1백만원×30년) = 4천 5백만원으로 계산된다. 나머지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 주부는 그 자금 출처를 대야 할 것이다. 세제상의 출처란 결국 과세의 증거인데 우리나라의 주부 중에서 세금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거나 쉽지 않은 형편이다. 주부들이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에 거의 공포에 가까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리고 이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주부가 30년 동안 결혼생활에서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4천 5백만원으로 계산해주고 있다. 주부들에게 결혼생활 동안 공짜로 밥먹여준 세금 건지 않고 소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만큼이라도 쳐주는 건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세법이 인정해 주는 가사노동 이외의 경제적인 역할을 크게 해왔다. 앞에서 조강지처의 마술지팡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부분이다. 이 마술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제도적인 금융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

는 것처럼 취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주부들은 '원초적인 분노'를 느껴 왔던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못마땅해 한 점 중에 하나가 흑인들은 은행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한국인들은 쉽게 받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국교포들이 소수 민족이면서 은행대출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비제도적 금융권인 계 조직이 활성화돼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계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면 그 돈을 신용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것이었다.

한국 여자 중에서 계를 안 하는 주부는 드물다. 한 주부는 여자들이 계를 하지 않고는 목돈을 만들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어느 은행에서 주부에게 목돈을 빌려줍니까? 주부의 신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부들이 목돈 쓸 일이 없나요? 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부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 풍토라면 주부가 목돈을 쓸 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모범주부상인 조강지처 내지 마누라의 역할 속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 조개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핵심항목으로 들어있다. 남편 별이 시원치 않아서, 혹은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만 가지고 '까먹고' 앉아 있는 아내들을 가리켜 한국의 마누라들은 '제주도 없다'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제도 금융권에서 인정받을 길 없는 한국 주부들의 경제적인 에너지는 자연 세금 없고 감사 없는 사금융, 계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몰려들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어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실속없는 부추김만 계속할 일이 아니다. 한국 주부들이 해온 남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금융권과 정부에서는 여자를 보는 시각을 바로잡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경제혁명의 과제로 인식돼야 할 것이다. 또 아예 제도화된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비공식적인 경제행위에만 전념해온 여성들도 자신들의 금융가치를 제도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에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효선 기자>



리도 주고 받는다.

평생 실업자 남편을 재산가로 만든 억척부인

강남에서 "꽤 산다"는 얘기를 듣는 60세의 전업주부가 있다.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40세를 바라보는 장남의 이름을 차용한 ○○엄마로 불리울 뿐이다.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학력으로 역시 가난한 집의 아들과 결혼했고 그의 남편은 평생을 실업자로 지냈다. 이 주부는 서울 번두리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 돈을 만들기 시작해 그 돈으로 이자를 놓고 계를 굴리고 땅을 샀다.

이 부인의 억척은 그 주변에서 유명했다. 돈에 대해서는 염라대왕보다도 무섭게 구는 여자로 통했고 자기자신의 생활에서도 잔인하게 내뱉었다. 그가 여자용 속옷을 사입은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남편의 속옷이 떨어지면 그것을 꿰매어서 입곤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집의 재산은 남편의 능력이 아닌 것이 분

으로는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한국의 여성들은 참으로 많다. 한국여성들이 자기가 한 만큼 자기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도 금융실명제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다.

이 부인은 요즘 금융실명제가 적용되고 나서 자식들 몰래 가지고 있던 통장이 들리게 생겼다고 걱정이다. 엄마한테 돈이 있는 줄 알면 자식들이 바라는 마음이 커질까봐 항상 가진 것 하나도 없다고 엄살을 떨어 왔다는 것이다.

마술지팡이를 든 한국의 조강지처들

주부들은 심리적으로는 그 집의 재산을 일으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끼고 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재산을 갖기는 불가능했다고 자신하는 주부들이 많다.

한달에 1백만원씩 저금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1년이면 1천 2백만원이 모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 될 것이고 30년이면 3억 6천만원이 될 것이다. 이 원

현실이고 세컨 카, 세컨 하우스를 가진 집도 그리 귀하지 않다.

우리의 현실이 산술적 계산을 한층 뛰어넘어 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마술지팡이를 휘둘러 주었음을 의미한다. 신데렐라를 공주로 만들어준 마술사가 쥐를 준마로 만들고 호박을 밧을 마차로 만들고 누더기 옷을 반짝이는 공주의 옷으로 만들고 그리고 유리구두를 내주었듯이 말이다.

이 마술사의 마술지팡이를 우리나라 주부들의 비공식적인 경제능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재산을 지니고 사는 근본요인은 주부들의 마술지팡이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술지팡이는 주부들이 '콩나물 값' 깎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고와 내핍의 노동으로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하우스와이프'와 '마누라'의 차이점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봉